

# 5·18 피해자 삶 만족도 30점 ...가난·질병 등 '곤궁한 삶'

광주일보, 광주시 '5·18 피해자 실태조사' 보고서 입수 분석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구금과 부상을 당했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일보가 입수한 광주시의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5월 피해자들의 곤궁한 삶이 입소문으로 전해지기는 했으나 실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전국 거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또는 가족 등 2477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전체 응답자 중 60대 이상이 93.7%였으며, 70대 이상 29.8%, 50대 5.0%, 40대 이하 1.3% 등이었다.

5·18 피해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지수화해 물은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34.68점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신체 건강 27.77점, 심리 건강 28.65점, 경제 상태 27.34점, 문화·여가활동 28.79점, 주거환경 36.01점 등이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자는 54.6%에 그쳤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4.1%에 달했다.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5·18민주유공자에 걸맞은 대우(경제적 지원 등)를 받지 못해서가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5·18에 대한 사회 일각의 폄훼와 왜곡 때문에 자긍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27.0%를 차지했으며, 사회적 분위기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존경이 미흡하기 때문에(4.1%),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3.5%) 등 응답도 있었다.

◇소득 낮고, 부채 많고=전체 응답자의 연평균 본

51% 직업 없고 47% 트라우마 여전  
기초수급자 비율 3배 이상 높아  
부상자 이혼율도 평균보다 3~5배  
"유공자 자긍심 느낀다" 55% 그쳐

인 소득은 평균 1821만 2184원에 불과했다. 부상자는 1784만 848원, 공로자 2355만 4435원, 유족 1438만 6966원 등이었다. 이는 보훈유공자의 연평균 본인소득 246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기준)이었다.

5·18 피해자들 중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1.2%에 달했다. 이외에는 자영업 9.6%, 기능·숙련공 8.1%, 생산직 7.4%, 판매 서비스직 5.3% 순이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상 이유가 58.5%를 차지했으며, 나이(퇴직) 33.6%, 실직 3.0%, 무응답 1.9%, 근로의사 없음 1.2%, 가사 1.0%, 간병 0.5%, 기타 0.2% 등 이유가 뒤따랐다.

전체 응답자 중 부채가 없는 경우는 38.8%에 그쳤으며 5000만원 미만 22.6%, 5000만~1억원 13.8%, 1억~1억 5000만원 7.7%, 2억원 이상 17.1% 등 빚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14.6%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으며, 차상위 계층은 9.0%였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4.8%인 점을 감안하면 5·18 피해자 중 수급자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



16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를 찾은 안도약산중·고교생들이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반면 5·18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일시 보상금 금액은 3000만원 미만 32.1%, 3000만~5000만원이 37.1%로 70%에 가까운 이들이 5000만원 이하의 보상금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5000만원~7000만원 12.5%, 7000만~9000만원 7.4%, 9000만원 이상 9.3% 등 보상금을 받았다.

◇44년 지나도 여전한 고통=5·18 피해자들이 5·18 당시 받은 피해나 고통은 '고문, 구타 포함 신체 부상 및 질병'이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피해의 유형은 타박상 67.6%, 골절상 42.1%, 자상 17.8%, 총상 11.7%, 성폭력 0.3% 등

이었다. 5·18 이후 가장 심각하게 겪은 문제는 정신적 고통(56.4%), 신체부상 및 질병 후유증(54.0%) 등이었다. 경제적 어려움(34.2%), 성격의 심대한 변화(15.7%), 사회적 고립(13.2%), 술·담배·약물 등 의존(11.7%), 가족해체(6.8%), 의료비 과다 지출(3.5%) 등 피해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 PTSD(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들의 비율은 47.1%에 달했다. 피해 관계별로 PTSD 경험 비율은 '부상자'가 51.1%로 가장 높았고, '공로자' 47.9%, '유족' 27.7% 순이었다. 지난 1년 간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

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13.8%가 받지 못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진료받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진료비) 49.8%, 예약이 힘들어서 11.6%, 트라우마 전문의료진을 찾기 어려워서 9.7%, 교통편 불편 7.9%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 해체 피해도 적지 않았다. 5·18피해자의 현재 결혼 상태는 기혼·동거(사실혼 포함)가 66.6%에 그쳤으며 이혼·사별·별거 29%, 미혼 4.2% 등이었다. 5·18부상자의 이혼율은 16.1%, 공로자의 이혼율은 12.6%로 통계청 '2021 혼인·이혼통계'의 60세 이상 이혼율 3.7%에 비해 3~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유족 가슴에 대못 박는 5·18 왜곡 개탄"

전계량 전 5·18 유족회장, 아들 전영진 열사 추모식 참석

"34년 동안 매년 아들 추모식을 열어도, 나이 아흔이 되어서도 아직 가슴이 아픕니다."

16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매월동 광주대동교에서 전영진 열사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식은 지난 199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4년째 매년 열렸으며, 이번 추모식은 전영진 열사의 아버지인 전계량(90) 전 유족회장이 구운을 맞은 해에 열려 의미를 더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최고령 5·18 유공자 중 한 명인 전 회장은 "추모식에서 아들의 동창이나 동급생들의 추모사를 듣고,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다"며 "참 아들이 학급 생활을 잘 했구나,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 회장에게 5·18 유족으로서 지난 44년을 묻자 "한스럽던 삶, 도저히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건강과 경제적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진상 규명'과 '5·18 왜곡·폄훼'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는 것이 전 회장 설명이다.

전 회장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라며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인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회장은 진상 규명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지난해 들어서야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5·18 아픔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최근에는 자신도 건강에 이상이 생겨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 놓였다.

전 회장은 "한평생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젠 몸이 만신창이가 돼 버렸다"면서도 "아들에 대한 추모식이 열리는데 아버지가 빠질 수 없지 않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 추모식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진 열사는 1980년 대동고 3학년이었으며 5월 20일 서점에 가던 중 계엄군에게 폭행당한 뒤, 5월 21일 "조국이 우리를 부릅니다"라는 말



아들 전영진 열사의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낭독하고 있는 전계량 전 5·18유족회장.

을 남기고 금남로 시위에 나섰다가 옛 광주노동청 앞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맞고 희생됐다.

전 회장은 아들의 죽음을 규명하고 광주시민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지난 1982년 11월부터 5·18 유족회장을 맡는 등 투쟁에 앞장섰다. 전 회장은 신군부가 유족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일부 유족에게 돈을 주고 회사를 모자를 이장시키는 '비밀기 작전'에 맞서고 피해자 보상 목소리를 높이는 등 활동을 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초등교사가 커뮤니티에 5·18 왜곡 글 '시끌'

"다시 공부하세요" 교사들이 일침

초등학교 교사가 교사커뮤니티에 5·18이 왜곡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올려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의 계기교육 게시판에 지난 15일 새벽 1시께 한 초등학교 교사가 '5·18민주화운동 계기 교육 수업자료(비판적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계기교육은 공식교육과정은 아니고 5·18 같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다루는 수업이다.

해당 커뮤니티는 초등학교 교사가 인증해야만 가입과 글작성이 가능한 사이트로 초등교사간 교육자료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전국 초등교사 10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학교에서 사회, 역사시간에 민주화운동을 배웠지만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스스로 공부를 하다보니 여러 의문점이 생겼다"면서 "시위대는 총기와 폭탄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온 건지? 시위대는 전남도청에 왜 폭탄을 설치했는지? 무엇이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글을 남겼다. 이 글에는 1980년 당시 시민군이 모아둔 총과 수

류탄 등이 박스를 들고 있는 사진 등 3장과 1개의 한글 문서를 첨부했다.

첨부된 한글 문서에는 "군부대와 경찰서에서(총기와 수류탄을) 가져왔다면 그동안 군인, 경찰은 가만히 있었을까? 전남도청 지하에 왜 폭탄을 설치했을까? 그 폭탄을 해제한 사람은 노무현 정권때 훈장을 빼앗겼다. 왜 빼앗겼을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진실일까 스스로 생각하면서 성장하는 힘을 기르자"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라고 글을 쓸 공간을 마련해뒀다. 15일 오후 4시 기준 이 게시글의 조회수는 219회에 달했다.

댓글에는 "의심이 많은 것에 비해 공부하는 자세 안하신 모양이네요", "이거 진짜 학생들에게 가르치실 생각이신가요? 안그랬으면 좋겠네요. 제발", "40년이 지난 요즘에도 이런 주장이 있다니 치가 떨립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돌아가신 수많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부디 다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는 등 우려의 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자중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은 관련 게시글의 작성자를 확인하고 관련사실에 대해 법률검토 후 수사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